

Germany's Sustainable Growing Label Printing Market

지속성장하는 독일 라벨 인쇄시장

- KOTRA 글로벌원도우(<http://news.kotra.or.kr/kotranews/index.do>) 자료 제공 -

I. 라벨 인쇄시장의 부상

라벨 인쇄(Etiketten Druck)는 포장 인쇄의 한 영역으로 분류되며, 책·인쇄물·포장물에 사용되는 라벨을 인쇄하는 사업으로 표면에 붙여 사용하는 점착라벨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독일연방인쇄연합(Bdvm)에 따르면, 독일 인쇄산업의 매출액은 2008년 133억 유로를 정점으로 낮은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에는 114억 유로를 기록, 전년대비 성장률은 2012년 이후 계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2018년 마이너스 2.5%를 차지했다.

라벨 인쇄시장은 신기술과의 접목, 친환경 수요에 대한 부응을 통해 전반적으로 성장세를 띄고 있다.

2012년 11억 유로에서 2018년 12억 유로로 성장하며 인쇄산업에 있어서 희망으로 등장하고 있다.

II. 신기술 수요에 의해 성장 중

라벨은 단순 상품 정보 표기를 넘어선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닐슨(Nielsen)은 식품회사 크라프트(KRAFT)가 드레싱 제품의 신선함을 기존의 종이라벨에서 투명라벨로 바꾸고 약 16%의 판매 신장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인구 고령화 및 1인 가구 현상에 맞추어 재부착 포장 라벨이 출시돼 각광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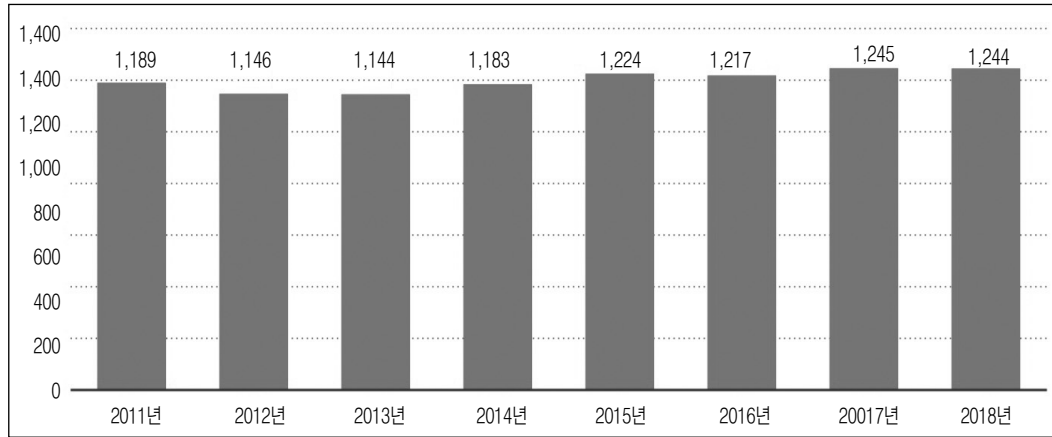
개봉한 후에도 탈부착이 간편하여 제품을 재사용할 수 있게 하는 라벨이 음식물, 물티슈 등의 제품에 상용화 되었다.

또한 온라인 판매 현상이 급증함에 따라 제품 반품이 쉬워져 소비자는 반품된 물품의 재판매를 의심하게 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개봉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개봉 방지용 파괴라벨은 제품의 안전과 소비자의 신뢰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제품 정보 및 유통 경로를 추적할 수 있게 하는 전지태그(RFID) 기술이 첨가된 라벨

(그림 1) 독일 라벨 인쇄산업 매출액

(단위: 백만 유로)



(자료원 : Statista)

로 유통의 효율을 높이고 불법 복제 상품인지 유통업자·판매자가 점검할 수 있는 RFID라벨이 확산되고 있다.

Ⅲ. 건강과 친환경 트렌드를 반영

2019년 독일 산업컨설팅 볼터스클루버(Wolters Kluwer)는 레이저 프린터에서 나오는 초미세 토터먼지와 오존가스 및 유해가스의 방출을 경고하였고, 시장에서는 잉크젯 전용 디지털 라벨 인쇄기가 확산되고 있다.

친환경 정책에 부합하여 유해한 솔벤트가 아니라 친환경적 에멀전 재료를 기반으로 한 라벨과 식물성 소재와 생분해성 소재를 이용한 친환경 라벨, 플라스틱 재활용 소재를 이용하는 라벨 등이 개발되고 있다.

(사진 1) 디지털 라벨 인쇄기 100대째 판매를 축하하는 갈루스 임원



(자료원 : Gallus)

히네 프린터사의 히네(Hine) 대표이사는 “인쇄업계에서는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심각하게 하고 있다”며 “히네 프린터사도 최소 30%가량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마케팅 전략으로도 주효하다”라고 설명했다.

IV. 디지털 라벨 인쇄 업계 트렌드

1. 낮은 디지털화 비율

라벨 인쇄의 경우 아직 디지털화 비율이 낮다. 2016년 전 세계에 판매된 디지털 라벨 인쇄기는 980대에 불과하고 이는 전년대비 117%의 성장이라고 컨설팅 업체 야노(Yano)는 발표했다. 디지털화에 대한 기대는 점점 더 커지는 추세이다.

2. 대기업 기반 회사들이 시장 주도

세계 제1의 인쇄기업인 독일의 하이텔베르크는 갈루스(Gallus)를 설립하여 디지털 라벨 인쇄 산업을 통해 인쇄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려 하고 있다.

밥스트(Bobst)와 라덱스(Radex)는 합작법인 모우벤트(Mouvent)를 설립하여 디지털 라벨 인쇄 산업에 대응하고 있다.

3. 수요에 맞춘 라벨 세분화와 영세한 유통망

상표 라벨의 경우에는 아트지, PE, PP 등이, 바코드 인쇄분야에서는 감열지, 열전사(TT)지, PET 등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의류 분야에서는 Transcode(트랜스코드)를, 사무용품과 우편 분야에서는 모조지, 감열지 등을 사용하고 있다.

디지털 라벨 인쇄기는 가격도 비싸고 큰 장비이기 때문에 중고시장도 많이 활성화 되어 있다. 연간 출하대수가 1,000대 전후의 산업규모이기에 전문 유통업체는 규모가 크지 않고, 대형 제조업체의 경우 자체 판매라인을 통해 유통을 담당하고 있다.

B2B 정보 사이트인 WLW에 따르면 종업원이 100명 이상인 독일 제조업체는 에티픽스(etifix)와 갈루스(Gallus)뿐이며, 유통전문 업체로는 라벨던스트(Labelident), 베아엠(WAM), 얀즈 운트 라쉬케(Janz & Raschke), 하트로닉(Hatronik), 굿테크(Good Tech) 등을 꼽을 수 있다.

V. 결론

독일의 디지털 라벨 인쇄시장은 공급회사의 숫자는 적은 상황이나 자체 유통망의 확보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라벨 인쇄와 관련한 기술에서 RFID 등과 같은 기술을 탑재한 라벨 업체의 경우 언제나 환영 받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